

장애·비장애 허문 미래형 놀이문화축제 '눈길'

문화재단, 디지털기술·스포츠 융합 'ACC미래운동회'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서 50명 참여...주제 전시 연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이 'ACC 미래운동회' 전시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16일 복합전시1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미래운동회'가 열렸다.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개최된 'ACC 미래운동회'는 시민들에게 친숙한 '운동회' 문화를 디지털 기술과 현대예술, 스포츠 문화를 융합해 미래형 놀이로 새롭게 제시하는 전시다.

ACC는 장애 유무를 넘어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자 현재 복합전시6관에서 열리고 있는 접근성 강화 주제 전시인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와 'ACC 미래운동회' 전시를 연계한 특별 행사를 기획했다.

이날 ACC를 찾은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소속 장애인 50여명은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 전시 관람 후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스포츠 축제인 'ACC 미래운동회'를 통해 새

로운 놀이 문화를 경험했다.

ACC는 이번 행사를 위해 두 차례의 운동회 시연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장애인의 자원을 받아 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감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를 기획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ACC 미래운동회'에서 참가자들은 모션 캡처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디지털 팡파 먹기'와 AI 기술을 접목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콘텐츠를 통해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놀이 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특히 '따르릉 전화반오세요' 프로그램은 정해진 공간에서 청각만으로 보이지 않는 전화벨 소리를 찾아내는 게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함께 경쟁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나현승씨(23)는 "AI 운



지난 1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1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운동회'가 열렸다.

동화는 처음 참가해보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엔지 힘이 나서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운동회가 많이 생겨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운동회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ACC 미래운동회' 특별행사는 장애와 비장애, 세대와 문화를 넘어 모

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포용적 문화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도 ACC는 예술과 기술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모두에게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PEOPLE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구민 교수 KUSB 상임위원 선임

남부대학교 구민 교수(사진)가 최근 대한체육회 대학스포츠위원회(KUSB) 상임위원에 선임됐다.

구 교수는 2025년 제34회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학생 국가대표 선수를 파견하고, 각종 대학스포츠 기관들과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 대학 스포츠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양향교, 10년만에 전통혼례 예술인 재능기부 공연 등 다채

광양시는 10여년만에 광양향교에서 2건의 전통혼례가 이뤄져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광양향교는 조선 세종 25년인 1443년에 창건된 지방의 유학교육과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창건된 교육기관으로 6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해오고 있는데 이달에 2건의 선남선녀들이 일한 결혼예식장 대신 전통문화가 숨 쉬고 있는 향교에서 전통혼례를 치른 것.

혼례는 지난 3일에는 신랑 최 모군(소방공무원)과 신부 신모양(시청 공무원)이, 17일에는 신랑 성 모군(회사원)과 신부 박 모양(회사원) 이라 상대 광양향교 전례(전 성규관 전인)의 집례로 올려졌다.

이번 전통혼례는 광양향교가 주관으로 전통혼례에 따라 진행됐으며 시민 누구나 관람하는 공개행사로 진행됐다. 또 전통혼례는 지역 예술인들이 재능기부형식으로 참여해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신혼부부의 앞날 행복을 기원했다.

박노희 광양향교 전교는 "현대화사회로 우리의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있는데 향교에서는 전통문화 계승의 하나로 향교를 전통혼례의 장소로 무료 개방하여 많은 선남선녀들이 이용토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종찬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작명

운세 (음력 4월 22일)

48년생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60년생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어하는 법
72년생 좋은 운이 귀함을 만들고 있다
84년생 실용할 수 있는 절호에 기회
96년생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동하라

51년생 유혹에 동조한다면 될 일도 안된다
63년생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
75년생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라
87년생 불일치로 인한 폐단이 보인다
99년생 순리대로 행하면 행통 하리라

54년생 빛 독촉으로 상심하게 되리라
66년생 결정적인 순간이니 주목하라
78년생 귀하의 힘만으로는 역부족
90년생 남비를 하지 말고 아껴 두라

57년생 주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69년생 매사가 순조롭다
81년생 지금은 휴식이 필요한 때
93년생 성질을 참지 못해 불화를 일으킨다

49년생 어려움이 닥치니 도리가 없다
61년생 부동산 거래 운이 좋다
73년생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때다
85년생 방법을 달리 하더라도 좋은 결과
97년생 크게 감동 받게 될 것이다

52년생 가족들로 인한 경사가 따른다
64년생 경험을 살려서 대처하라
76년생 재물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
88년생 몸이 상할 우려 있으니 다투지 말라

55년생 오랜만에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67년생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 것
79년생 계획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 행동하라
91년생 상호간 불기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58년생 손해보고 얻는 운이니 속상해 하지말라
70년생 하는 일마다 성공이 보인다
82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
94년생 바라는 이상이 나타나질 않는다

50년생 자녀로 인한 근심수가 있다
62년생 부주의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된다
74년생 가치를 상충시킬 수 있는 기회
86년생 자금 회전에 비상이 걸릴 운
98년생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53년생 겸손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65년생 행운이 있는 날 지인을 조심하라
77년생 도와주는 운이지만 승수를 조심
89년생 강력히 추진하라

56년생 신중하게 말해야 문제가 없다
68년생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80년생 배려하면 앞도 잘 풀린다
92년생 업무에 실수를 많이 하는 날

59년생 차량이나 도로상의 조심하라
71년생 땅 짚고 헤엄치는 날
83년생 별 일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95년생 득되는 것이 없는 상황

침단종합사회복지관, 5·18 추모 나서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침단종합사회복지관이 오월영령 추모에 나섰다.

18일 침단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따르면 최근 '미래를 밝히는 빛, 다시 만나는 오월정신'이라는 주제로 5·18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오월 정신의 역사적 의미와 계승해야 할 가치를 얘기함으로써 시민이 하나 되는 자치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추모의 시간, 계승의 시간으로 구성된 행사에는 복지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의 시간은 국립5·18묘지에서 오월지기들의 해설과 함께 오월 영령의 넋을 달랬고, 계승의 시간에는 각자의 소감을 나눴다.



침단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 최근 오월 정신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80년 5월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새기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오월 정신은 헌법 정신과 맞닿아 있으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숭고한 유산이다.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i404@gwangnam.co.kr

광양제철소, 특수어린이집 아동 초청 숲 체험학습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하 희망의 정경다리 봉사단은 최근 광양시 옥룡 송밭공원과 마동 생태호수 공원에서 광산 특수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숲 체험학습 안전도우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30여명의 광양제철소 직원과 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희망의 정경다리 봉사단은 특수어린이집 아동들과 숲 속에서 나무와 식물들 직접 만져보고 숲 속의 다양한 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자연물 찾기, 황토 체험 등을 함께하는 등 아이들이 자연과 환경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오감 체험형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왕국 봉사단장은 "아이들의 한없는 맑은 웃음



소리를 듣다 보면 내 마음도 함께 행복해지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며 "아이들이 어른들의 사랑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광주시는 지난 15~16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인권보호관들, 광주서 인권정책 법제화 논의

인권침해 공동대응 모색

광주시는 지난 15~16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과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연계해 인권보호관협의회 의장도사인 광주에서 개최됐다. 전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소속 인권보호관들이 지방정부 인권구제기구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

련됐다. 첫째날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식과 전례회의에 참석해 뒤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지역별 인권 현황을 공유하고 차기 개최지 선정 등을 논의했다.

둘째날에는 '인권정책기본법(안)과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전진희 상임인권유무즈맨은 "이번 워크숍은 지방정부 인권보호체계 강화와 전국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는 앞으로도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는 중심도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쌀 전달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 북구 임동에 위치한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우리 쌀 나눔활동'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쌀 나눔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 우리 쌀 소비 촉진과 농업·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호 본부장과 김재중 회장신 부를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의 지원으로 마련된 300만 원 상당의 쌀을 광주 취약·소외계층 60가구에 전



달했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원한 쌀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게시판

결론 △류선용(법무부의료과)·양효정(순천시청 관광과장) 씨의 아들 시형(미래기계기술)군, 김삼진(KT 부장)·이항란씨의 딸 혜빈(순천 평화병원)양=6월 7일(토) 오후 1시 30분,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길 94 아모르웨딩홀 4층 그랜드볼룸.

알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린이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확대피해노인전용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양육·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안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